

다시 흐르는 성내천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지금 성내천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속에는 팔뚝만한 잉어, 붕어가 힘차게 헤엄친다. 각종 수생식물이 강 주변에 자라고, 가끔 운이 좋으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로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 바닥에 메마른 하천이었던 성내천이 이렇게 새롭게 변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송파구청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송파구청이 주민들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던 성내천을 다시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확보와 기본 설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 연말이었다. 자세한 복원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청 치수와 김대훈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천의 유량 확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송파구에는 지난 1988년부터 올림픽공원 내에 한강물을 유입하는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성내천의 2km 개방구간에 흘려보내기로 했고,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송수관로 공사를 2003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4년 4월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성내천에 흐르는 물은 바로 이렇게 끌어올린 한강물을 정화 처리하여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에 개방구간이 시작되는 상류지점에 가면 하루 16,000톤의 한강물이 폭포처럼 시원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송파구의 새로운 명물, 성내천 복원사업에 성공한 송파구청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난 성내천에 가다

주민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거듭나

성내천 개방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는 전체 2km 중 1.2km 구간에 대한 1차 공사가 완공된 상태이다. 먼저 하천 바닥에 깔려있던 콘크리트와 철근을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새로 깔아서 세련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공사와 함께 강폭도 훨씬 넓어져 시원스럽다. 하천 중간 중간에 심어놓은 수생식물은 그 자체로도 보기 좋지만 수질 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성내천의 변신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성내4교와 성내5교 사이에 조성된 벽천(인공폭포)과 분수대,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다. 송파구청은 이 시설을 위해서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용하였다. 그냥 버려졌을 1급수의 질 좋은 물을 주민을 위한 시설에 이용한다는 것이 보기 좋았다. 이 벽천과 분수대를 통해 팔팔 쏟아져 나온 지하수는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 후 하천으로 흘러 섞여 성내천의 유량을 더욱 맑고 풍부하게 한다.





◀ 성내천 물놀이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

한 여름에만 가동되는 물놀이 시설에도 이 지하수가 이용되는데 식수로 이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한 물에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었으니, 송파구의 새로운 명물이라고 할만하다. 올 여름 개장 당시 하루 이용 주민이 최고 2,500명 이상이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송파구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까지 소문이 퍼져 한 여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특히 성내천 주변으로 난 자전거 도로는 한강 지류를 따라 여의도까지, 탄천 지류를 따라 성남까지 이어져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될 전망이다.

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천에 가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복원공사가 1차 준공되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성내천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낼 만 했다. 주민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거듭난 성내천에 가보자.

글 윤종환 · 사진 현명진



성내천을 아끼고 가꾸는 일은 주민의 몫

성내천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자연은 자연을 알아보는 법.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난 성내천의 환경은 신기하게도 여러 자연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성내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한 송파구청에서도 물고기며 새들이 스스로 찾아와 준 것에 내심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이러한 기쁨은 성내천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선물이다.

성내천 복원 사업은 분명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송파구청은 앞으로 1차 완공된 구간 외에 나머지 개방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원사업을 펼쳐나감은 물론 치수와 내에 새롭게 신설된 하천시설탐을 통해 매일 하천 주변 청소 및 수질 관리, 주민 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자연과 더불어 성내천을 더욱 아끼고 가꾸는 일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미 시작된 자원봉사 및 환경 모임을 중심으로 성내천의 새로운 파수꾼들이 하나 둘 늘어갈 것이다.

성내천은 기다린다. 자연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날을 말이다. ☺

* 성내천 이용에 관한 문의나 제안은 송파구청 치수과(02-410-341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